

가망 없는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왔다.

서른을 불과 하루 앞둔 추운 겨울날의 퇴근길.

자취방이 있는 달동네 뒷산에 나타난 거대한 탑을 보았을 때.

처음엔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드디어 내가 미쳐버렸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은 커녕 마지막 연애를 한 지도 벌써 5년이 되어가고.

아무 계획도 없이 중소기업 사원의 쥐꼬리 만한 월급 대부분을 현질에 쏟아 부으며 살아왔다.

그렇게 이룬 것 하나 없이 맞이한 아홉 수의 겨울내내 지난 시간들에 대한 후회를 곱씹으며 지냈던 터라 자신의 정신상태를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고였다.

한달음에 동네 뒷산의 정상까지 올라 하늘을 꿰뚫는 탑의 문 앞에 서서 거친 호흡으로 허공에 나타난 사각형의 시스템창을 읽을 때.

비로소 눈 앞의 이현상(異現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용사의 게임' 입장안내]

본 탑은 '구원의 엘라이안'의 주관하에 '용사의 게임'이 개최되는 아공간(亞空間)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프롬타뉴의 반지' 개인랭킹 500위 이내에 속한 플레이어임이 검증되어야 입장이 승인됩니다.

- 현재 참가인원: 499명 / 500명

- 입장 대기자 성명: 유정명

- 대표 캐릭터의 개인 랭킹: 1위
- 입장자격 심사결과: 승인

20대의 대부분을 함께 했던 온라인 RPG 게임 '프롬타 뉴의 반지'에서 정명은 현실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전체 서버 통합 개인랭킹 1위.

모든 플레이어들 중에서 가장 높은 레벨에 도달한 자에게만 허락되는 자리에 정명이 있었다.

이 탑은 그동안 정명이 지금의 랭킹에 오를 때까지 쏟아부은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주었다.

“이건 기회다.”

그렇기에 '승인'이라는 두 글자를 읽자마자 정명은 운명의 전환점에 다다랐음을 느끼며 전율했다.

5일째 이어진 야근을 벗어나 11시가 한참 넘어서야 올라온 뒷산 정상의 공원은 인기척없이 칼바람만 일었고.

뒤돌아본 발 아래의 서울은 고요한 어둠 속에서 세계사에 유래 없는 고속성장이 만들어낸 환한 야경을 뿜냈다.

그러나 그 수 많은 불빛 중에 내 집 하나 장만하기 힘든 것이 지금껏 정명이 버텨온 냉정한 현실이었다.

만약 새로운 운명이 주어진다면 그 문을 열어야 할 지 아니면 지금의 삶에 만족해야 할 지.

그 순간의 정명예겐 답은 명확했다.

- 철컹. 끼이이이익.

탑의 육중한 나무문이 열리는 소리가 한 밤의 공원에 울려 퍼진다.

어두운 탑의 내부로 들어선 순간 정명은 이십대 마지막 날 밤의 자정을 넘기며 서른이 됐다.

마지막 참가자 '서른 살의 평범한 회사원 유정명'의 입장을 확인한 탑은 스스로 열린 문을 걸어 잠그며 새로운 안내 메시지를 띄웠다.

['용사의 게임' 입장마감]

이번 기수 참가자 전원 입장완료되어 게임종료 시점까지 모든 게이트를 폐쇄합니다.

잠시 후 차기 용사 선발전이 시작됩니다.

- 남은 시간: 00:10:00

- 프롤로그 - 마지막 밤, 끝 -